

국별 리포트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²	G D P	736억 달러 ('13)
인구	9.36백만명	1인당 GDP	7,860달러 ('13)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대외정책	러시아 및 EU 간 독자적 외교노선	환율(달러당)	0.78

- 1991년 독립 이후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소수 권력층과 일부 관료들에게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유(세계 20위), 천연가스(세계 25위) 생산 및 경유지로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통적인 협력국인 러시아와 에너지 수송처 다변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EU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음.
- 독립 이후 시작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아직까지 진행 중임에 따라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4.9	0.1	2.2	5.8	5.0
재정수지 / GDP	-0.9	0.6	0.3	0.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5.7	7.8	1.1	2.5	4.4

자료: EIU.

□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확대 등 2014년 경제성장률은 5%로 지속적인 성장 예상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산업다변화 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부문 투자로 건설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편임.
- 2012년에는 원유 생산량 축소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약화로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13년에는 정부의 산업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부문 정부지출 확대로 건설부문이 전년 대비 23% 성장하며 5.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한 정부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확대로 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석유기금을 통한 예산전용으로 재정수지는 흑자

- 국제원유가 하락 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석유기금(SOFAZ, State Oil Fund of Azerbaijan)을 예산에 전용하고 있음. 국가석유기금 예산전용액이 전체 재정수입의 약 60%를 차지함.

- IMF는 재정지출 관리준칙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5년 이전까지는 준칙에 의한 재정운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2013년에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석유기금 예산전용액을 통해 전년과 동일한 0.3%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은 비에너지 부문 세수확대가 예상되지만,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국가석유기금을 통한 예산전용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악화된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부문 투자자본 유입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

- 아제르바이잔은 비에너지 부문 상품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실상의 미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어 물가수준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제약이 있음.
- 2012년에는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황 호조와 중앙은행의 제한적 통화공급 정책이 맞물리며, 1.1%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3년 역시 제한적 통화공급 정책 및 소득증가율 둔화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의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에너지 관련 외국자본 유입 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한 4.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관련 제품 수출이 2013년 말 기준 총수출의 94.1%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부문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붕괴된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 부진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 개발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BP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70억 배럴 (세계 0.4%)에 달하는 원유와 확인매장량 0.9조 m³(세계 0.7%)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BP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해 카스피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제르바이잔 석유 생산량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는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과 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을 개발한 바 있음.

□ 유럽시장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가능

-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송이 정치적, 기술적 요인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유럽은 러시아 이외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주목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최장 BTC 송유관(아제르바이잔 Baku - 그루지야 Tbilisi - 터키 Ceyhan)을 통해 2005년부터 유럽에 원유 공급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본격화한 SCP(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은 연간 80억 m³의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13년 6월 BP 주도의 샤 데니즈 국제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가스의 대 유럽 공급 노선으로 TAP(Trans-Adriatic Pipeline) 가스관을 선정하였으며, 동 가스관 건설이 이루어질 경우 아제르바이잔은 샤 데니즈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안정적으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운반 통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스수출 확대 및 통관료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다각화 추진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성장동력인 원유 생산량이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유생산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국가석유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석유화학단지 수직계열화 추진

-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SOCAR)는 17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2014년 4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는 가스처리플랜트, 정유플랜트, 석유화학플랜트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어 석유화학단지의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이후 가스처리플랜트에서는 연간 120억 m³의 가스를, 정유플랜트에서는 연간 800~1,000만 톤의 정유를, 석유화학플랜트에서는 연간 10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프로젝트 건설비용 중 30%는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에서, 나머지 70%는 해외용자 및 국가석유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 완공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고용 증대 및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대외거래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최근 하락세이나 여전히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아직까지 비에너지 부문 발달 수준이 낮아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원유, 천연가스 수출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는 국내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소폭 축소됨.
- 2013년에는 기계장비 및 수송차량에 대한 높은 국내수요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역시 에너지 부문 투자활성화에 따른 기계장비 및 소비재 수입 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증가하는 추세

-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113억 달러, 2013년 말 기준으로는 13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

□ 해외차입 제약 등으로 총외채는 GDP 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

- 금융부문의 미발달로 인한 해외차입 제약 등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총외채 규모는 GDP 대비 2012년 13.9%, 2013년 13.8%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1년 4.9%, 2012년 5.3%, 2013년 6.5% 등 최근 들어 상승추세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15,040	17,144	14,976	13,282	13,327
경 상 수 지 / GDP	28.4	26.0	21.5	18.1	16.9
상 품 수 지	19,730	24,327	22,217	22,631	22,480
수 출	26,476	34,494	32,634	34,378	35,431
수 입	6,746	10,167	10,417	11,747	12,951
외 환 보 유 액	6,409	10,274	11,277	13,559	· ·
총 외 채 잔 액	7,094	8,370	9,712	10,144	10,730
총외채잔액/GDP	13.4	12.7	13.9	13.8	13.6
D S R	1.8	4.9	5.3	6.5	5.7

자료: EIU, OECD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알리에프 대통령 장기집권 체제 지속

- 알리에프 대통령은 2013년 10월 열린 대선에서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함. 시위대에 대한 무력동원, 언론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해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야당세력들은 원외 활동을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언론에 대한 제한적 접근, 자금력 부족 및 정부의 시위금지 정책 등으로 인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 독재 체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로 사회불만을 잠재우며 선거 때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최근 소득불평등 및 고위층 부패에 따른 국민불만 고조로 시위 발생

- 고위층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소득 불평등 및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3년 1월 이스마일리에서 벌어진 현 노동부 장관 아들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시민들의 소요사태로 이어진 바 있으며 시위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불평등한 소득재분배 구조가 지목됨.
 - 2014년 2월 정부의 도시계획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에 반발한 바쿠 시민 4,000여 명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바쿠 시내 나리마노프 주변 지역 주택철거 및 강제퇴거 보상금액이 시세에 훨씬 못 미친 것이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3. 국제관계

□ 아르메니아와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

- 구소련 체제로부터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와 EU 간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 속에서 독자적 외교노선 추구

- 2013년 8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 및 아제르바이잔의 러시아 군수물자 수입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움직임으로 갈등을 빚고 있음.
 - 러시아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통해 아르메니아와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음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한편,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이 EU와 직접 연결되는 가스수송관(TAP) 구축을 추진하고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타 CIS 국가와는 다른 독자 노선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음.
- EU는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확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면서 동 지역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송루트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아제르바이잔과 EP(Eastern Partnership)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도 미미한 수준

-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출에 기인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2013년 말 기준 9.1%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2013년 12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3.0억 달러, 중장기 30.0억 달러 등 33억 달러임. 이 중 0.5%에 해당하는 18.1백만 달러(단기 1.1백만 달러, 중장기 17백만 달러)가 연체 중이며, 중장기 연체금액 중 2백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4. 3)	C3 (2011. 12)
OECD	5등급 (2014. 1)	5등급 (2013. 1)
S&P	BBB- (2011. 12)	BB+ (2009. 12)
Moody's	Baa3 (2012. 4)	Ba1 (2011. 3)
Fitch	BBB- (2013. 10)	BBB- (2013. 4)

□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 투자적격 등급 부여

- 아제르바이잔은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0년 5월 BBB- 등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S&P는 2011년 12월 BBB-로 한단계 상향조정된 이후 등급을 유지함. Moody's는 2012년 4월 Baa3로 한단계 상향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2014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의존적 수출구조 및 대통령의 독재 체제 지속 등을 반영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이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Full public and limited private sector cover)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ST and MT cover available)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Restrictions will apply)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216,948	282,067	308,444	자동차, 합성수지, 기계요소
수 입	269	87	3,361	석유제품, 동광, 기호식품
합 계	217,217	282,154	311,805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92년 2월 23일(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06),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투자증진및보호협정,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관한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협정(이상 '13)
- 양국간 교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세
 -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기계요소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동광, 기호식품 등임. 양국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2.8억 달러, 2013년 3.1억 달러 수준의 교역규모를 기록함.
-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2013년 12월말 누계): 16건, 445만 달러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 아제르바이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2012년 해외직접투자액은 3.8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3년 건설업부문 투자증가로 직접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21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3년 12월 기준 누계금액은 445만 달러로 건설업에 대한 투자(410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임.

V. 종합 의견

- 정부의 산업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부문 지출 확대로 2013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에 대한 대외수요 확대 등으로 5%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원유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알리에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층에 만연된 부정부패, 소득불평등 등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내재되어 있음.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EU 간 독자적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영유권 분쟁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에너지 수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DSR 수준도 낮은 점으로 볼 때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김세진 (☎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